



꼬리조팝나무 / *Spiraea salicifolia* L.

구분	설명
생물분류	식물
속국명	조팝나무속
과국명	장미과
과명	Rosaceae
일반특징	<p>요약설명 : 장미과 낙엽 활엽 관목으로 함경북도에서 강원도 남부, 경기도 및 황해도 일부에서 자란다. 또한 일본, 중국, 극동러시아 등 매우 넓게 분포한다.</p> <p>분포지역 : 일본, 중국, 극동러시아 등 매우 넓게 분포; 함경북도~ 강원도 남부, 경기도 및 황해도 일부 분포.</p> <p>형태 : 낙엽 활엽 관목.</p> <p>크기 : 높이 1~ 1.5m.</p> <p>꽃색 : 붉은색, 백색</p> <p>개화기 : 7월, 6월</p> <p>잎은 뒷면에 잔털이 있고 가장자리에는 작은 톱니가 발달했다.</p> <p>꽃은 5월 말~9월 중순, 줄기 끝에 큰 원뿔모양꽃차례로 나타난다. 꽃대와 작은꽃대에는 털이 많다. 꽃받침통은 원뿔을 거꾸로 세운 모양이고 5개로 갈라진다. 각각의 갈라진 조각은 달걀 모양이며 끝이 날카롭게 생겼다.</p> <p>꽃잎은 분홍색이고 거꿀달걀모양으로 동그랗게 생겼으며 수술은 꽃잎보다 길다.</p> <p>열매는 골돌과고 갈색으로 매끄럽다. 열매가 익으면 벌어지는 부분을 따라 털이 나 있다. 9월 말~10월 중순이면 익는다. 줄기는 높이가 1~1.5m에 이르고, 가지에 능선이 있으며 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. 뿌리 부근에서 많은 가지가 나와 한 장소에 몰려 난다.</p> <p>다른 조팝나무와는 달리 산골짜기 및 습기가 많은 곳의 근처에서 자란다. 추위를 견디는 성질이 강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고 그늘보다는 햇볕을 좋아한다. 반면에, 건조한 상태를 견디는 성질은 약하기 때문에 마르고 거친 땅에서는 자라지 못한다. 따라서 바닷가 지방에서는 잘 자라지만 도시 중심에서는 보통이다.</p> <p>씨를 뿌리거나 새로 자란 가지를 꺾꽂이하여 쉽게 번식시킨다. 3~4월과 6~7월, 9월쯤에 꺾꽂이를 하면 뿌리가 잘 내린다.</p> <p>조팝나무 중 꽃이 붉은색인 것은 오직 이 종류뿐이고 훼손되었을 때 새로운 줄기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강하다.</p>